

(사)죽향대금산조원정보존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4.04.24.(수)	총 8쪽(붙임 포함)
문의/담당	신지후(기획, 죽향보존회 국제학예부) / 010-2732-8100 / donnertanz@naver.com	

죽향 이생강 명인,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 공연 열어

5월 4일 서울 강남 민속극장 풍류...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첫대소리 深深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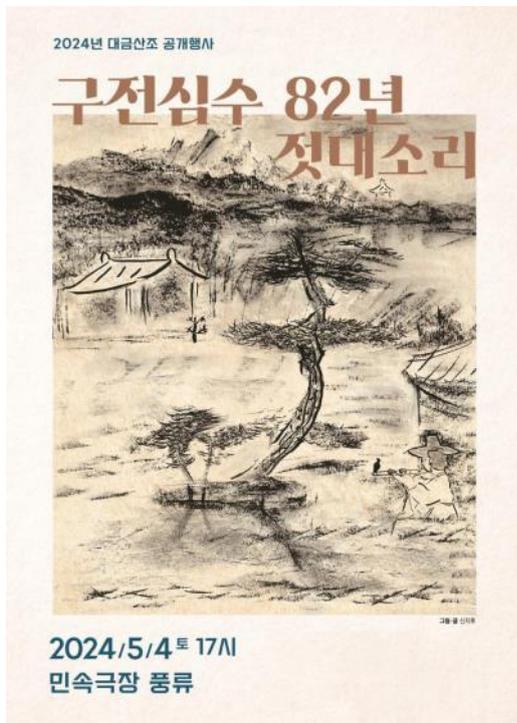


사진: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 포스터

공연명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
공연일시	24년 5월 4일 토요일 17시
장소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
예약채널	네이버, 전화, 문자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12세 이상
주최/주관	(사)죽향대금산조원정보존회
문의	010-2732-8100

죽향대금산조원정보존회(이사장 죽향 이생강)는 5월 4일(토)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국가무형유산 죽향 대금산조 공개행사로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조는 장고 장단에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으로 신을 우러러 모신다는 의미의 시나위에서 기원한다. 시나위는 고대로부터 관혼상제의 의식에 사용되던 평안을 기원하는 민속 기악곡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 집결한 23분의 스승으로부터 팔도의 가락을 모두 섭렵한 이생강 명인은 판소리와 봉장취(사랑과 죽음의 노래), 메나리조(동부 산유화 가락) 등의 다양한 가락을 고루 녹여내어 장대한 가락의 산조를 정립했다.

이번 공연에서 죽향 이생강 명인(중요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예능보유자)은 문하생,

이수현(설장고) 및 신지후(기획) 등과 함께 첫대소리의 유래를 담은 만파식적의 '오래된 이야기'와 우주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가슴속 '심오한 이야기', 온 세상에 자유로이 뻗어가는 '무성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탁월한 깊이감을 보여주는 성음과 현장의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즉흥성으로 이번 공연은 한국민속악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진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관계자는 '그동안의 국민 성원에 보답하고자 가슴에서 가슴으로 구전심수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공개행사를 마련했다. 첫대뿐 아니라 설장고 및 민요와 아쟁 등 민속 가무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열린 가슴으로 함께 궁극의 평온에 이르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공연 예약은 네이버와 문자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관람은 전석 무료다.

행사문의: 02-742-7484, 010-2732-8100

□ 공연 정보

2024년 5월 4일 토요일 17시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
12세 이상
무료공연
예매 문의: 010-2732-8100

□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 공연 소개(기획의도/프로그램)**모시는 글**

국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남녘의 바람 훈훈히 감돌아 들었던 이 대지 위에 어김없이 소생의 봄빛이 드리워져 삼라만상이 생동하는 호시절, 지난날을 회상하여 봅니다.

이 땅을 잃어버렸던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후 이어진 한국전쟁의 어린 시절부터 고금의 향수(古今의 鄉愁)를 품고 있는 첫대소리를 벗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고풍상(萬古風霜)의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첫대를 놓지 않고 활동하면서 인재육성에 혼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땅의 수천년 뿌리깊은 가락의 성음(聲音)을 80여년 구전심수(口傳心授)하여 이룩한 함축된 성음(成音)의 결정체를 동고동락하는 문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온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고이 바칩니다.

열린 가슴으로 만고일월(萬古日月)의 평온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죽향 이생강 올림

젓대소리 深 深 深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하여지는 이야기가 있다

深 오래되다

한반도에 수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피리가 있다

동해의 바닷가 작은 거북섬에 낮에는 돌이요 밤에는 하나로 보이는 신묘한 대나무가 있었으니 왕은 바다의 용에게 그 까닭을 물었다. 용이 전하기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파도를 잠재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대나무를 베어 만든 젓대소리가 바로 산조의 근원이다. 이것은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허무는 소리이다. 사람과 하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신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어 분열을 극복하고 궁극의 평온에 이르는 길을 닦는다.

深 심오하다

깊고 깊은 동굴 속에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의 가슴 속은 너무나 깊고 광활하여 알 수가 없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다. 그리하여 햇불 하나 들고 캄캄한 동굴 속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서 온갖 기묘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젓대소리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가슴속 비경(秘境)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르러 빛 한줄기가 스며들어오면서 긴 여정을 마무리한다.

深 무성하다

뿌리깊은 나무는 무한히 가지를 뻗어 나간다

산조는 끝이 없다. 그것은 알파(A)이며 오메가(Ω)이다. 첫 울음소리로 탄생을 알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本으로 회귀한다. 시공간을 향하여 무한히 열려 있어 고정된 가락이 아니며 시류의 굴곡과 공간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연주자의 내공과 깊이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표출되어 변화무쌍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무엇이던가. 산조는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의 뿌리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고 돌아가곤 한다.

□ 프로그램

죽향 대금산조 합주

대금: 門下生 일동

이광훈, 오명근, 최명호, 전기도, 천희영, 이 성준, 홍석영, 류강민, 김민혜, 임정현,
한창희, 변상엽, 강성부, 윤진우, 강병하, 김보민, 이범영, 최유진, 최유정, 신지후

장고: 이관웅

산조는 신을 우러러 모신다는 의미의 시나위(神仰位)에서 기원한다. 시나위는 고대로부터 관혼상제의 의식에 사용되던 평안을 기원하는 민속 기악곡이다. 23분의 스승으로부터 팔도의 가락을 모두 섭렵한 죽향 선생님은 판소리와 봉장취, 메나리조 등의 다양한 가락을 고루 녹여내어 장대한 가락의 산조를 정립하였다. 죽향 산조는 낙이불류(樂而不流)의 우조와 애이불비(哀而不悲)의 계면조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우계면의 어우러짐이 절묘하며 청아한 대소리와 절제된 청소리의 조화로운 청탁(淸濁)이 구성지다. 산조는 본래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되었으나 죽향 선생님이 처음으로 대규모의 문학생들을 이끌고 함께 연주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관현악 협주와 합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고 있다. 오늘의 공연에서는 문학생들의 짧은 산조 합주와 죽향 선생님의 긴산조 독주가 이루어진다.

강원풍류(메나리조)

소금: 죽향 이생강

장고: 천희영

강원풍류는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내려오는 메나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여 죽향 선생님이 정립한 곡이다. 메나리의 메는 산을 뜻하며 나리는 꽃이다. 메나리조는 강원도 산악지대 고개를 넘나드는 교통로에서 사용되는 말의 억양에 따르는 가락이며 동해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는 산유화라고 일컬어진다. 오늘은 소프라노 음역대의 소금으로 연주된다.

이수현의 김동연류 설장고

반주: 죽향, 이광훈, 천희영, 이관웅, 이성준

설장고는 농악 풍물굿에서 장구잡이의 으뜸을 말한다. 본래 상쇠와 둘이서 가락을 주고받던 놀이였으며 오늘날에는 장구가 단독으로 연행되고 있다. 김동연류 설장고는 섬진강을 경계로 호남 서부 평야지대의 우도농악(右道農樂) 가락을 바탕으로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방향을 지키는 신을 의미하는 오방색의 고깔을 쓰고 복을 기원하면서 신명을 풀어낸다. 이수현 선생은 신명나는 관악 반주를 타고 명확한 호흡과 타법으로 어깨와 디딤의 멋스러운 버숨새와 아기자기한 고깔치기를 특징으로 하는 호남우도풍물굿의 진수를 보여준다.

최명호의 소리

1. 뱃노래

동해안의 어부들이 부르던 경상도 메나리가락이었으나 오늘날 반경토리의 경기민요화되었다. 선율 진행이나 시김새(꾸미는 음) 등이 메나리조보다는 경조에 가깝다. 어기야디여차 만경창파(萬頃蒼波)에 배 띄워 술렁술렁 노저어 달맞이 가는 정취가 느껴진다.

2. 어디야 낄낄(육칠월 흐린 날)

경기 휘모리 잡가의 대표적인 곡으로 자진타령장단에 맞추어 부른다. 오뉴월 장마철의 흐린 날 어디야 낄낄 소 몰아가는 더벅머리 아이눔을 불러 세우고 말 물어보자 하면서 님에게로 보내는 전갈을 부탁하니 아이 하는 말이, 머슴의 살림살이가 한창 바쁘니 전할지 말지 한다. 해학성이 돋보인다. 낄낄낄...

이관웅의 아쟁산조

장고: 이성준

진양의 희노애락 중머리의 기본 중중모리의 멋 그리고 자진모리의 희롱하는 재주를 보여주는 아쟁소리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구비구비 끊길 듯 애잔히 심금을 울린다.

죽향 대금산조

대금: 죽향 이생강

장고: 이관웅

팔도강산 아리랑

대금: 죽향 이생강 장고 이관웅

토속적 정서에 따른 다양한 각 지역의 아리랑을 한데 엮었다. 민초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삶의 노래인 아리랑은 지역적 경계를 넘어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락이다.

竹郷 李生剛의 竹香(죽향 이생강의 죽향)

대나무를 베어 직접 악기를 만들어 부셨던 아버지 이수덕의 무릎제자로 5살에 관악기에 입문하여 기초를 다졌다. 이후 1947년 8월 전주역 앞 풍남동에서 대금산조의 명인 한주환(1904-1963) 선생님을 만나 산조를 전수받았으며 대금과 함께 대나무의 본래자리라는 의미의 竹郷(죽향)이라는 호를 받았다. 젓대로 세계를 넘나들면서 1960년 7월 자유와 예술을 사랑한 도시 파리의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세계민속악축제기간에 국립극장 사르베르나에서 한국의 젓대소리(대금산조)를 세계에 최초로 선보였다. 이후 동서 냉전의 마지막 시기인 1980년대 평화로운 하나의 지구촌을 향하여 정진하는 인류의 문화 축제 88 서울올림픽 폐회식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만파식적의 소리를 세계인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이제 죽향 선생님의 평생 소망이자 마지막 투혼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국의 민속가무악 아카데미 하우스를 이루는 것이다. 죽향 선생님은 세계를 향하여 무성하게 가지를 뻗어나갈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인교육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왔으며 교육영상과 교본을 제작하였고 쉽게 구하여 연주할 수 있는 정확한 음정의 악기 개발에 몰두하여 PVC전통관악기를 제작하여 특허출원하였다. 뜻이 견고하니 이루어지리라.

죽향 선생님은 한국민속악을 비롯하여 명상음악과 시대의 유행하는 가요, 수많은 창작곡들을 음원으로 남겨서 시공간을 넘어서 젓대소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樂聖의 대나무 향기(竹香)는 영원히 푸른 빛을 잃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 <구전심수 82년 첫대소리> 공연 주요 출연진

출연진

보유자: 죽향 이생강

전승교육사: 이광훈

이수자: 오명근, 최명호, 전기도, 천희영, 이성준, 홍석영, 류강민

전수자: 김민혜, 임정현, 한창희, 변상엽, 강성부, 윤진우, 강병하, 김보민, 이범,영 최유진, 최유정, 신지후

설장고: 이수현

아쟁: 이관웅

사회: 양재열

글/그림: 신지후